



Red Cross

2025 vol. 583 AUTUMN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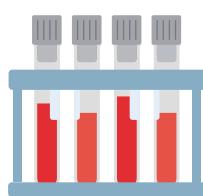
1948



1970



1980



사진으로
보는
대한적십자사
120주년-③



2007. 12. 26.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복구를 위한 집중구호

2000. 2. 25.

경기도 안산 고향마을 사활린 한인 아파트 입주식



2005. 8. 15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 실시(남북 각 20가족)



2001. 2. 26.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으로
서울에서 반세기 만에 만난 이산가족의 모습



2003. 5.

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난민촌 구호활동



2003. 2. 18.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구호활동



2003. 3. 21.

남북 청소년적십자 단원 금강산 식목 행사





Saving Lives.

대한적십자사 120주년을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발자취를 사진으로 되짚어봅니다.

봄호: 1903년~1972년 여름호: 1973년~1999년
가을호: 2000년~2015년 겨울호: 2016년~2025년

2015. 5.

네팔 지진 피해 지역
긴급구호단 구호활동



2010. 1. 14.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활동



2010. 11. 29.

연평도 포격사건 구호활동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활동
(369일 동안 구호활동)



2012. 2. 23.

대한적십자사와 백석대학교 학생
3,006명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피방울 (기네스북 등재)



2013. 12. 5.

필리핀 태풍 하이옌 재난구호 활동



CONTENTS

- 05** **발행인 메시지**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누구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 06** **역사 속 대한적십자사 - 공공의료/혈액사업 편**
혈액과 의료로 구축한 인도주의 120년
- 08** **RC 국내 리포트**
폭우가 쏟아진 그 밤, 우리는 깨어 있었다
- 12** **RC 스페셜 스토리**
120년을 이어온 인도주의의 등불
- 14** **RC 스페셜 리포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병원을 꿈꾸며
- 18** **RC 캠페인**
한 방울의 용기가 만드는 기적
- 20** **RC 스페셜 인터뷰**
나의 뿌리, RCY에서 시작된 인도주의
- 22**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고등학교 JRC에서 시작해 50년간 이어온 나눔의 여정
- 24** **후원금 사용 보고**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 2024년 의료·혈액사업
- 26** **최갑수의 여행**
가을 초입 느긋한 마음으로 걸었다
- 28** **일상 속 RC**
모닥불과 바비큐는 낭만, 안전은 필수!
- 30** **RC News**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소식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42** **RC를 만나는 방법**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 43** **RC 후원자 코너**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커버스토리

앞표지

1919년 8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적십자회 설립

1948년 6월 30일 응급처치수료증과 패치

1970년대 헌혈캠페인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헌혈

뒤표지

2001년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활동

2010년 2월 아이티 지진 대한적십자사-대한의사협회

공동 긴급의료 활동

2020년 4월 서울적십자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2024년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희망 소식



채널 바로가기



웹진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RedCross
발행인 김철수 편집인 박종술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홍보팀(서울시 종구 소파로 145)
전화 02-3705-3705 기획·디자인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누구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올여름을 돌아봅니다. 지난 7월 전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발생 즉시 전국 재난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이재민 구호와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120년간 구축해온 재난대응 시스템과 전국에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십자 인도주의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상주적십자병원의 ‘누구나진료센터’입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외국인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까지 말 그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이후 3천여 명의 환자가 치료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진료받기 어려웠던 분들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재활병원 운영 역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지역공공의료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호자 역할

을 자임하며 예방접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현혈의집과 이동현혈버스를 통한 혈액사업으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현혈자 참여를 바탕으로 연간 150만 단위 혈액을 공급하며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가을,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확대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치매 예방과 독거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공공보건의료는 단순한 진료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실천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 철 수



혈액과 의료로 구축한 인도주의 120년

현혈운동부터 국제구호까지, 생명을 살린 역사

1905년 창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일제강점기 상해 독립군 간호원 양성부터 4·19, 5·18 혈액 지원, 서해 병원선 백련호 운영, 인도네시아 쓰나미 긴급 구호, 코로나19 전담병원까지 120년간 국가적·국제적 위기마다 최전선에서 국민과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대 간호교육의 시작: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개소

1920년 2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대한적십자회가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 적십자간호원양성소를 설치했습니다. 무력항쟁 중 부상을 입은 독립군을 돌볼 간호사를 양성할 목적이었습니다. 양성소는 광복 후 1945년 적십자간호고등학교로 부활해 현재까지 이어지며, 우리나라 근대 간호교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혈액사업의 체계적 시작: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1957년 7월 31일 국립혈액원의 시설을 인수하여 서울적십자병원 내 혈액원을 개소한 데 이어, 1958년 2월 15일 국립혈액원을 정식으로 인수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을 개소했습니다. 1961년 혈액성분제제 생산과 공급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으며, 1981년 7월에는 전국 혈액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14개 혈액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58



1960



현혈운동의 출발점: 4·19 혁명 부상자 치료와 현혈

1960년 4·19 혁명으로 전국적으로 186명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료용 혈액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현혈에 나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61년 '사랑의 현혈 운동'을 시작했고, 1974년에 이르러 매혈에서 현혈로 완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 우리나라 현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준 것입니다.

1977



낙도 주민을 위한 이동병원: 적십자병원선 백련호, 무궁화호

1976년 대한적십자사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서해 낙도 주민들을 위해 병원선 ‘백련호’를 취항하고 무료 진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백련호는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를 갖춘 이동병원으로,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20여 개의 섬을 돌며 각 섬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77년 제2병원선인 무궁화호(128톤급)가 목포에서 취항해 전남 지역 무의촌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순회진료를 펼쳤습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한 연대: 5.18 민주화운동 협액 지원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중 조선대학교병원으로 계엄군에 의해 부상당한 시민들이 쇄도했고,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과 적십자의 협액 지원은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



2005



국경을 넘은 인도주의: 인도네시아 쓰나미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을 강타한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12개국에서 23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05년 초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의료시설이 파괴된 피해 지역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며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연간 헌혈자 300만 명 시대 개막

국내 혈액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헌혈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은 대한적십자사가 1958년 헌혈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지 56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헌혈자 3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혈용 혈액은 100% 국내 헌혈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



2020



팬데믹 최전선의 헌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울, 상주, 영주, 통영적십자병원이 국가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확진자 치료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서울, 대구, 경북 지역 거점병원에 적십자병원 의료진을 파견하며 정부와 공동대응을 펼쳤으며 서울, 인천,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폭우가 쏟아진 그 밤, 우리는 깨어 있었다

전국 극한폭우 피해 긴급구호활동



2025년 여름,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 기부자들 덕분에 대한적십자사는 아산, 가평 등 주요 수해 현장에서
25,0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5,976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적십자 재난 상황실

2025년 7월 중순, 시간당 100mm를 넘는 물폭탄이 우리나라 곳곳에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발생과 동시에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며 전국적인 긴급구호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난상황실에서는 전국 각 지사와 실시간 상황 공유 시스템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지원했습니다.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마자 전국 17개 지사에 긴급구호 준비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경상남도 산청군,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당진 지역에는 구호물품과 인력을 우선 배치해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120년의 재난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이번 극한호우 상황에서도 짜임새 있게 작동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대한적십자사는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품 지원, 대피소 설치, 심리사회적 지원 등 종합적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 따뜻함,

충청 들녘의 작은 기적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아산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지사들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7월 23일 아산지구협의회 회원 20명을 포함한 90여 명의 적십자 회원들이 천안, 당진, 예산지구협의회와 협동으로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금산군 복수면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적십자봉사원들이 농가별 맞춤형 복구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토사 제거 작업부터 농기구 정리, 농작물 피해 조사까지 세심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숙 아산지구협의회장은 "피해 지역에 빠른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조속히 피해 복구작업이 추진되어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현장에서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충청권 지역의 구호활동은 여러 복구작업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적십자봉사원들은 이재민들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급식차량 운영을 통해 복구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2025년 극한호우 대응 현황

*2025. 8. 8. 15시 기준



활동 인원

5,976명



물자 지원

130,868개



급식 지원

25,520인분



심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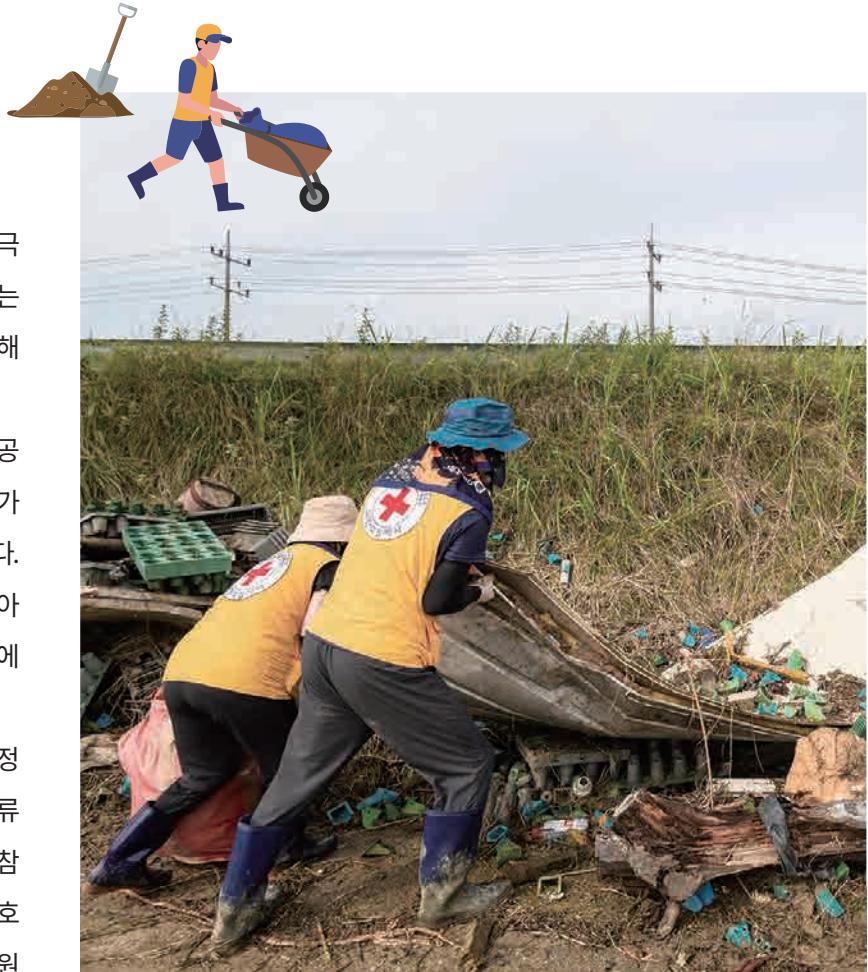
1,284명

가평 계곡에 올려 퍼진 감사의 목소리, 3,500명을 위한 따뜻한 밥상

경기도 가평군에서도 7월 20일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 무너지고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피해 발생 즉시 현장에 구호팀을 급파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연인원 3,5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했으며, 대한적십자사 동북봉사관을 중심으로 남양주, 구리, 가평지구협의회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급식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 26일에는 안재욱 흥보대사와 김민지 영양사가 현장을 찾아 토사 제거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군 장병 및 소방대원 320명에게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총 1,186명의 인력을 투입해 침수 피해 지역의 토사 제거 및 정리 작업을 실시했으며, 세탁차량을 운영해 피해 주민들에게 의류 세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강원지사 봉사원들도 가평 현장에 참여해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었고, 긴급구호세트 43개, 응급구호세트 46개, 비상식량세트 104개 등을 전달하며 심리회복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하나 된 마음, 17개 지사가 그려낸 전국의 연대

이번 극한호우 대응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단위의 통합 지휘 체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본사 재난상황실에서는 전국 17개 지사의 구호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원 배분을 조정했으며, 각 지사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긴급구호세트 배급, 임시대피소 운영, 급식 지원, 세탁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등 표준화된 구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농가 피해에 대한 농업 복구 지원, 가평 지역의 산사태 피해에 대한 토사 제거 작업, 서해안 지역의 염해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응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타 지역 지사 간의 상호 지원 체계였습니다. 가평 현장에 강원지사 인력이 파견되고, 충청권 복구작업에 수도권 지사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120년 동안 구축해온 전국 단위 조직망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내일을 위한 다짐,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심다

극한호우 대응을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재난대응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구호물품 지원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심리사회적 지원,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등 종합적 접근으로 확대해나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관리와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구호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지역별 특화 구호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해 신속 대응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복구 단계에서는 임시 거주 시설 지원, 생계 회복 프로그램, 재해 트라우마 치료 등 중장기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120년의 인도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20년을 이어온 인도주의의 등불

고종황제의 명으로 시작된 적십자병원 이야기



1905년 고종황제의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로 다치거나 병든 백성을 치료하라”는 명으로 시작된 적십자병원은 120년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지켜온 적십자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 ① 1960년대 구순구개열 수술
- ② 1966년 인천적십자요양병원 증축 준공식
- ③ 1960년대 무의총 이동 진료반
- ④ 1906년 최초의 적십자병원
- ⑤ 1950년 농어촌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한 부산적십자병원
- ⑥ 1977년 적십자병원선 무궁화호
- ⑦ 이중섭 화백



가난한 화가의 마지막을 지켜본 병원

1956년 9월, 서울적십자병원의 차가운 병실에서 한 화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바로 ‘황소’와 ‘흰 소’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중섭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채 극심한 가난을 겪는 중에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그는 거식증과 간염으로 무연고자가 되어 생을 마쳤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18만 원의 밀린 병원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십자병원이 가난한 화가의 사정을 참작해 병원비 9만 원을 삭감해준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적십자병원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오랜 에피소드 속에 적십자병원이 걸어온 120년 역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종황제의 뜻으로 시작된 공공의료의 꿈

1905년 7월 8일, 고종황제의 명을 통해 대한적십자병원이 탄생했습니다. 그해 10월 15일 경복궁 후문 근처에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적십자병원은 조선왕조 내내 이어져온 혜민서와 활인서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개원 당시 의원 3명, 간호부 3명 등 규모는 단출했으나 1907년 대한의원에 합병되기까지 총 6만 2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시작된 일제강점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는 일본적십자사에 흡수되며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역경과 극복, 그리고 현재까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군 전상병을 돌보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하고 1920년 간호원양성소를 운영했지만, 재정 여건으로 1기 13명을 배출한 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해방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새출발한 이래 적십자병원은 한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1950년대 농어촌 무료 순회진료, 1960년대에는 개인 수술과 구순구개열 수술 등 첨단 의료기술을 선보이며 의료 발전을 이끌었고, 1970년대에는 병원선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국 13개 병원을 운영하며 전성기를 맞은 적십자병원은 영화 ‘택시운전자’에 등장하는 광주적십자병원의 모습처럼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했습니다.

1990년대 국민의료보험 전면 실시와 민간병원 급증으로 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7개의 적십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6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적십자병원은 꾸준히 서민을 위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마지막을 지켜본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 ⑧ 서울적십자병원
- ⑨ 상주적십자병원
- ⑩ 영주적십자병원
- ⑪ 인천적십자병원
- ⑫ 통영적십자병원
- ⑬ 거창적십자병원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병원을 꿈꾸며

희망진료센터와 누구나진료센터로 실현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의료

대한적십자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진료센터'와 '누구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이어온 희망진료센터는 삼성과의 협력으로 전국 7개 적십자병원에서 외국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된 누구나진료센터는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희망진료센터: 함께라는 가치로 시작된 여정

2012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대한적십자사·서울대학교병원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개소한 희망진료센터는 올해로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제적 빈곤이 의료적 빈곤이 되지 않게, 의료적 빈곤이 인도적 빈곤이 되지 않게"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 이 공간은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난민 등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희망진료센터는 현재 전국 7개 적십자병원에서 운영되며 모든 이가 평등한 의료혜택을 받는 사회를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진료센터 운영현황

- 2012. 06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개소
- 2012. 11 인천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개소
- 2013. 03 상주·통영·거창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개소
- 2019. 03 영주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개소
- 2023. 01 경인권역재활병원 희망진료센터 개소



치료를 넘어 따뜻한 돌봄까지

희망진료센터는 의료비 지원과 함께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배려하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병원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치료 과정 전반에 걸친 도움을 제공합니다. 상주, 통영, 거창 등의 지역에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다문화 가정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층 자녀 무상 의료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더 넓어진 희망

코로나19로 잠시 위축되었던 희망진료센터 활동은 2022년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적십자병원 삼성 희망진료센터가 외국인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진료 환자의 99%가 외국인일 만큼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15-2024년) 희망진료센터를 통해 총 35만 3천 542명의 의료취약계층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남성이 43%, 여성이 57%로 성별에 관계없이 골고루 도움을 받았으며, 이는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현황



희망진료센터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
-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난민,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직장인 피부양자는 제외.

구분	외래	입원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100만 원	1인당 연간 500만 원
지원 비율	환자 본인부담금 50~100% 지원 (환자지원율은 의료비지원 심사평가표에 의해 결정)	
지원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환자의 직접 방문 또는 유관기관 의뢰 통한 접수② 환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후 지원 여부 검토③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범위 결정④ 환자 외래 및 입원 의료비 지원⑤ 퇴원 후 지역사회와 연계해 환자의 사회적 자립 지원	

* 대상자의 경제상황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초과) 지원 가능

* 서울적십자병원은 외래와 입원진료를 합산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누구나진료센터는 무료 진료를 넘어 의료취약계층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이 겪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복잡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필요 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NGO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진료센터 운영현황

- 2022.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개소
- 2024. 통영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개소
- 2025. 서울, 상주, 영주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개소

상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

지난 6월 상주적십자병원에 새롭게 문을 연 누구나진료센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34억 원 후원으로 탄생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인 존애원의 역사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개소를 축하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진료센터를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외국인 건강 교실’, ‘찾아가는 경로당’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누구나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료·봉사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진료 봉사를 희망하는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공공의료 모델

누구나진료센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정기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상주, 통영, 영주적십자병원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국적과 사연을 가진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만 6천여 명이 의료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28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누구나진료센터의 운영 취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누구나진료센터는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국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진 의사, 법학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립 북부병원장을 역임했다.

2013년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301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했다.

2025년 디지털헬스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문제 해결을 연구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는 개인의 책무성 강화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의료’는 공공병원의 수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은 이미 사회보험 자체에 내재해 있다.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공동의 재정풀(pool)을 통해 의료비를 분담하는 구조 자체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회보험 가입자인 국민 개개인의 책무성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국가주도형 사회보험이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지역별 보험에서 출발했으나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 단기간에 전국민보험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보편성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 스스로가 보험의 주인으로서 연대성과 책무성을 체화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준(準)조세적 제도에 머물러왔던 것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진정한 공공성은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 재정의 주체로서 연대적 의무를 지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보장 범위의 우선순위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중증·희귀질환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보장은 사회적 연대가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경증·생활습관병과 같이 개인의 관리 여지가 큰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무성을 제도 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활습관병은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은 진단을 받은 뒤에도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가입자 전체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 후 관리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본인부담 구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로서의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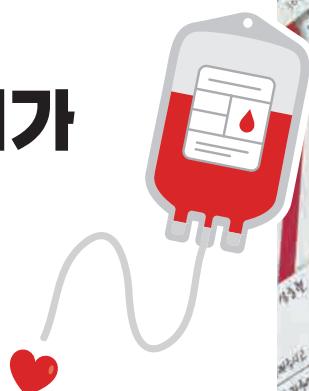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접근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까지 동일한 책무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오히려 취약계층은 별도의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책무성 기반의 사회보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병원 이용이 필요 없는 셀프케어(Self-care) 문화의 확산도 중요하다. 경미한 증상이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무조건 병의원을 찾는 습관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이는 의료 이용의 불필요한 팽창을 억제하고,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결국,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보험 가입자 개개인의 연대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다. **공공성은 제도의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함께 지탱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참여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국가가 해주겠지’라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내가 사회보험의 주인’이라는 능동적 책무성을 확립할 때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의료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한 방울의 용기가 만드는 기적

천안두정고등학교와 BGF리테일의
특별한 헌혈 캠페인



천안두정고 학생들이 만든 생기발랄 헌혈 캠페인

지난 5월 14일, 천안두정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헌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2025학년도 사랑의 헌혈 홍보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천안두정고 전교생과 교직원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헌혈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명 존중 의식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학교 정문과 후문, 중앙현관에서 RCY(청소년적십자사)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사랑의 헌혈 참여”를 알리는 아침 맞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헌혈 참여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운영된 헌혈 홍보 부스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보건실 앞 중앙현관에 마련된 부스에 모여

헌혈 관련 퀴즈를 풀고, 헌혈을 위해 힘써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부스에서는 “헌혈을 하면 건강에 나쁜가요?”, “왜 헌혈을 해야 하나요?”와 같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Q&A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헌혈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헌혈이 단순한 혈액 기부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임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혈 헌혈은 전체 헌혈 중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헌혈법’이라는 정보와 함께 헌혈자 상담 및 건강 확인, 헌혈 절차 지원, 혈액 관리 등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편지 쓰기를 인상 깊은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RCY 동아리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헌혈 캠페인을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 정신을 몸소 체험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곧 희망이 됩니다”라는 의료진 감사 편지는 헌혈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잇는 따뜻한 손길, BGF리테일 헌혈 캠페인

지난 6월 16일, BGF리테일이 소아암 환우를 위한 ‘2025 BGF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창립기념일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헌혈 참여를 넘어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BGF리테일 임직원 50여 명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100여 장의 헌혈증과 함께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한 4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삼성서울병원 소아암 병동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의 진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회사 덕분에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임직원의 소감처럼, 헌혈은 많은 분들의 나눔 소망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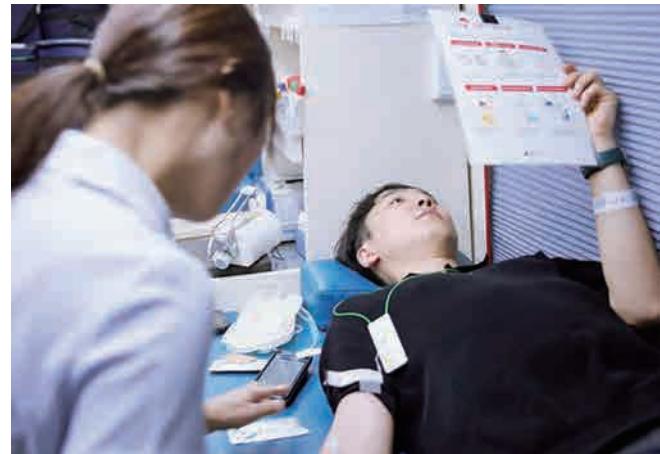
여름철 혈액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매일 서너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헌혈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BGF리테일은 헌혈 캠페인과 함께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보호에 필요한 주머니를 임직원과 가맹점주가 직접 제작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또한 BGF리테일은 BGF복지재단을 통해 ‘안녕한 하루, 꽃피는 내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고위험질환 환아들을 돋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2명의 아동이 2년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라는 BGF리테일 관계자의 말처럼, 작은 나눔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모바일 앱
“레드카넥트”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나의 헌혈
헌혈 기록 확인, SNS 공유,
다음 헌혈 가능일 조회,
헌혈증서 발급·재발급

건강
혈액검사 결과 확인,
동일 연령·성별 참고치와
비교를 통한 건강 상태 점검

헌혈 예약
헌혈의집·날짜·시간 선택해
개인·단체 헌혈 예약

헌혈의집 찾기
GPS 기반 가까운 헌혈의집
조회, 경로 안내, 운영 정보 확인

* 기타 서비스: 전자 문진, 혈액 전달 추적, 헌혈증서 유통성 조회, 헌혈버스 찾기, 이벤트 참여

나의 뿌리, RCY에서 시작된 인도주의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의 특별한 만남

서울 대원고등학교 RCY 활동으로 인도주의 정신을 접한 정연두 주 튀르키예 대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5회로 외무부에 입부한 그는 주 일본·주스리랑카 서기관,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단장을 거쳐 주 오스트리아 공사, 주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30여 년 외교관 생활의 밑바탕에는 고등학교 시절 품었던 인도주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 다. 사할린동포 귀환사업부터 현재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까지, 그가 걸어온 길에는 언제나 대한적십자사와의 특별한 인연이 함께했습니다.



RCY에서 배운 인도주의, 외교관의 든든한 뿌리가 되다

1982년 서울대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연두 대사는 입시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에 RCY(청소년적십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대입 준비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는데, RCY 단원들은 달랐습니다. 남을 돋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체육 시간에도 교실에서 자습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을 정도로 입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을 쪼개 RCY 단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참 특별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기억은 지금도 정 대사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영아원을 방문했을 때, 단원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울던 아이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이 훗날 외교관으로 일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선후배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생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와 함께한 눈물, 대한적십자사와의 깊은 인연

1997년 외교부 동북아1과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 대사는 대한적십자사와 본격적인 업무 협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징용으로 끌려간 후 50여 년간 귀환하지 못하고 ‘무국적 상태’로 살아야 했던 동포들의 현실은 그에



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98년 사할린 현지를 방문했을 때 만난 한 동포 할머니와의 대화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시골 마을 주말 장터에서 좌판을 놓고 무언가를 팔고 계시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한국에 가고 싶으시지요?”라고 묻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는 속병을 앓다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어요. 나 좀 데려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꼭 잡으셨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물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사할린 동포 귀환사업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을 잘 기록해둔 정 대사는 약속대로 사할린 동포 1세 귀국 1진에 할머니를 모시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후 주 일대사관 근무 시절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해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목격한 인도주의의 힘

스리랑카 근무 시절(2002~2004년)에는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

이 지속되던 시기에 실향민들의 어려움과 각종 자연재해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와 도쿄에서 열린 스리랑카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세계 구호 기관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2004년 말 쓰나미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국 적십자사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2011년부터 3년간 한국 외교관으로서는 최초로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파견된 경험 또한 무척 특별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적 조율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존엄, 세계 평화를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는 IAEA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함께 방사능 및 핵 비상사태 공동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며 외교와 인도주의 활동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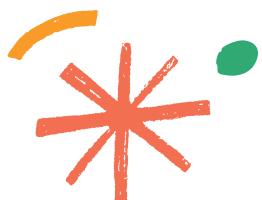
튀르키예에서 다시 만난 대한적십자사, 진정한 형제의 나라 만들기

2024년 주튀르키예 대사로 부임한 후, 정 대사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건설한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와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직접 보며 또 다시 감동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요원들이 튀르키예 적신월사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그 규모와 체계적 대응,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접근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현재 앙카라에 파견된 대한적십자사 직원과 함께 지진 피해 복구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사로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외교적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대사는 “외교는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며 “대한적십자사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 봉사활동은 진정한 인도주의의 실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민간외교, 인도주의에 기초한 공공외교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RCY 단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인도주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세계시민, 국제인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 만큼, RCY에서 배운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 실천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고등학교 JRC에서 시작해 50년간 이어온 나눔의 여정



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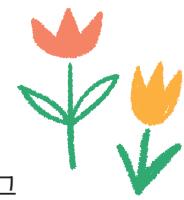


인천지역 법인기부 1호 회원 라인테크닉스 예태환 대표

라인테크닉스 예태환 대표는 1993년 창업 이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인천지역 법인기부 1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 이재단과 함께 30년 넘게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RC 활동에서 싹튼 봉사정신과 따뜻한 기업문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라인테크닉스(주) 사무실 3층. 예태환 대표(73)와의 만남은 그의 회사 곳곳에 스며든 따뜻한 기업 문화를 느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층 로비에는 직원들의 사진과 근속연수가 정성스럽게 게시되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직책이나 부서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들이 건의한 거예요. 나아가 많아도 직급이 낮은 게 싫을 수 있고, 생산부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라도 드러나는 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32년째 회사를 운영해온 예 대표의 경영철학은 ‘상호존중’이다. 예 대표의 나눔 철학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축학도를 꿈꾸던 그는 1970년부터 3년간 인천에서 현재 RCY의 전신인 JRC(Junior Red Cross) 활동을 했다. “그때는 모든 게 몸으로 하는 봉사였어요. 자월도까지 가서 마을길을 닦고, 인천 자유 공원에서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학교 간 교류는 물론 함께 봉사



했던 경험이 참 소중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 대표는 당시 JRC 동료들과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 적십자 정신이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거죠.”



창업과 함께 시작된 30년간의 꾸준한 나눔

인하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전기회사에 취업했지만, 예 대표는 33세에 과감히 퇴사하고 현재의 회사를 창업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장비 엔클로저, 특수 캐비넷,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며 미국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Applied Materials), 에默슨(Emerson) 등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 그는 회사 창립 전부터 꾸준히 아동단체에 후원을 이어오며 나눔을 시작했다. “30년이 넘도록 매월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저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어요.”

예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의 인천지역 법인기부 1호 회원이라는 특별한 기록도 갖고 있다. “법인기부가 개인기부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한 만큼 후원금액도 늘어나는 기쁨까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적십자 정신에서 배운 거죠.”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세대를 잇는 나눔 교육

예 대표가 특히 관심을 갖고 후원을 지속하는 분야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이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사회에 나와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는 초록우산 후원회장으로 활동할 때 기업

체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의 회사 역시 서울공고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 20여 명을 대학에 보내는 등 교육 지원에 힘써왔다.

예 대표는 자녀들의 삶에도 나눔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자녀들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인 ‘한사랑마을’에 종종 데리고 다니며 봉사활동을 함께한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하던 자녀들도 반복되는 봉사 속에서 일상과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체감했다고 한다. 예대표의 자녀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들만의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한 나눔 철학과 다음 세대로의 전승

예 대표에게 꾸준하게 나눔을 지속하는 이유를 물으니 명확한 답이 돌아왔다. “봉사와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의 만족이에요. 또 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스스로 뿌듯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데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적십자와 함께해온 그는 요즘 들어 진정한 봉사정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한번에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에 후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결연 기간을 단기간에서 중장기로 늘리고, 후원 금액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의 철학처럼, 예태환 대표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고 있다. JRC단원이던 한 소년이 품었던 나눔의 씨앗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라고 확장돼 오늘날 수많은 이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2024년 의료·혈액사업

의료사업

진료 실적 증대를 통해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며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인력·정보보안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운영 정상화 진료 실적 개선

구분	진료 인원(명)	진료 수입(백만 원)	병상가동률
2023년	1,000,893	114,058	49.0%
2024년	1,030,027	126,605	54.1%
증감	29,134	12,547	5.1%

경인권역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인증 획득



정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향상



2023년
63.8점
2024년
70.4점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부 경영혁신
지원사업비 확보·집행

영주병원 병동 증축사업
공사 국고예산 집행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의료 정보 DB 이관 등
스마트병원 구축 기반

재난대응의료팀 구축
(보건의료ERU)



필수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국고예산 교부액 기준)
2023년
96억 ► 2024년
140억

희망진료센터 지속 운영 및 누구나진료센터 추가 개소

통영병원 ‘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
취약계층 지원

1,969명

희망진료센터 지원 인원 확대



2023년
43,559명 ► 2024년
44,427명

희망진료센터 사업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계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영주	재활
인원	44,427	3,556	5,010	7,945	12,269	9,083	2,563	4,001
금액	1,572	503	333	207	172	126	131	100



혈액사업

혈액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헌혈자의 소중한 혈액이 수혈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헌혈자 예우 강화, 헌혈 편의성 향상을 위해 헌혈버스와 헌혈의집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수혈용 혈액 확보

헌혈 실적(2023년 대비 97,716명 증가)

2,639,162 명

전혈 1,822,386명
성분헌혈 816,776명

혈액 공급 실적(2023년 대비 52,336unit 감소)

6,163,168 unit

수혈용 3,996,018unit
분획용 2,167,150unit

다회 헌혈자 예우 강화사업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수여
(헌혈 400회 또는 전혈 100회 이상)



약 460명

등록헌혈회원 대상 문화행사
(단독 뮤지컬 공연, 권역별 토크 콘서트, 문화여행 및 체험, 특별 굿즈 증정 등)



ABO Friends
14,500명

헌혈버스 및 헌혈의집 개선

헌혈버스 운영

92대 / 신규 교체 5대



헌혈의집 운영

154개소 / 신설 2개소, 환경개선 6개소



혈액형 자동분석기 등 노후 장비 교체

11종 총 100대 / 35억 원



헌혈기부권사업 운영

공모사업

8개 단체 / 6.8억 원

장학사업

932명 / 9.3억 원



가을 초입

느긋한 마음으로 걸었다

: 광주 충장로에서 양림동까지

광주에 걷기 좋은 골목이 있다.
길은 도심 한복판을 지나고 천변도 따라가다가
한옥이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멈추기도 한다.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든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전시된 골목에서 끝난다.



광주의 예술을 감각하다

첫 코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n Culture Center, ACC). 지난 2015년 11월 개관했다.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문화자원 수집·연구,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전시, 공연, 아카이브, 유통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규모나 전시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아무래도 광주의 지역적 정체성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람인 만큼 전시기획 역시 이러한 정체성을 근간으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앞이 전남도청, 가까운 곳에 구 광주적십자병원 터가 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속에서 수많은 시민과 시민군이 이곳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고, 당시 헌혈 차량이 시내를 돌며 부상자 치료를 위한 자발적 현혈을 이끌어냈다. 1996년에 서남대학교에 인수되어 ‘서남대학교병원’(남광병원)으로 운영되었지만 2014년에 결국 폐쇄됐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배경으로도 등장한다.



구 광주적십자병원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느끼며 걷다

예전에는 충장로를 중심으로 광주읍성이 빙 둘러쳐져 있었다고 한다. 지금 광주 우체국 자리가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에만 남아 있다. 충장로 1가에서 3가 일대에는 대형 패션 물과 의류매장이 들어서 있고, 충장로 4~5가는 한복 거리와 도매 상가 거리로 꾸며져 있어 드문드문 옛 전통시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충장로가 있는 동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본정통’이라 불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광주의 중심이었고 그만큼 역사가 깊다. 당연히 문화도 발달했다. 이곳에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이유이다. 예술의 거리는 호남의 문화와 예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리로 광주 중앙초등학교 뒤편 사거리에서 동부경찰서까지 300미터쯤 된다. 길 양

쪽이 온통 갤러리와 화방, 도자기 가게로 빼곡한데, 특히 한국화와 서예, 남도창을 중심으로 한 남도 예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거리 한가운데 ‘궁전제과’ 본점이 있다. 옛날 서울 사람들이 종로서적 앞을 약속 장소로 정했듯, 광주 사람들은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궁전제과 앞에서 보자”고 했단다. 광주에 오면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들른다는 빵집이다. 나비파이와 공룡알빵이 유명하니, 들른다면 꼭 맛보길 추천한다.

궁전제과에서 큰길을 건너 조금 걸어가면 광주극장이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극



장이자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이다. 지금은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창극과 판소리 공연도 열렸다고 한다. 극장 앞에는 페인트로 그린 ‘헤어질 결심’ 간판이 걸려 있다. 고등학생 때는 직접 그린 간판을 내건 극장이 많았다. 새 간판이 걸릴 때마다 어떤 영화일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림이 실제와 달라 웃기도 했다.

극장 옆 좁은 골목으로 영화 거리가 이어진다. 50미터 남짓이지만 골목 입구부터 광주 극장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설치물로 알차게 꾸며져 있다. 그 옆으로 옛 매표소 모습도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작은 창에 돈을 내밀면 표를 주곤 하던 옛 극장 매표소가 떠오른다. 극장에 들어갈 때는 표를 검표원에게 보여주고, 검표원은 ‘펀치’로 동그란 구멍을 뚫어 다시 돌려줬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양림동 산책

마지막 코스는 양림동 펭귄마을이다. 양림동 주민센터 뒤쪽에 펭귄 조형물과 팻말이 있다.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관심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다. 마을 이름이 느닷없이 웬 펭귄

이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곳에 사시는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펭귄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주민들이 화재로 방치된 빈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과 쓰레기로 정크아트를 만들어 골목 벽면에 내걸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펭귄주막’과 인근 담벼락까지 이제는 마을 전체가 전시장과 다름없다.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지난 70~80년대 고샅 풍경이 펼쳐진다. 전화기, 자전거, 풍금, 시계, 주전자 등 고물들이 늘어선 풍경이 낯선 듯 익숙하다. 마을을 둘러보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 걷다 보면 버드나무가 살랑이는 광주천을 따라 다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돌아온다. 늦은 오후에 산책을 시작했다면 거리의 상점마다 불을 밝히기 시작했을 것이다. 광주는 아시다시피 맛의 도시기도 하다. 마음에 드는 음식점으로 들어가 광주의 맛을 즐기면 된다. ●



최갑수 ☺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작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여행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랑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 여행 중이다.
@ssuchoi

모닥불과 바비큐는 낭만, 안전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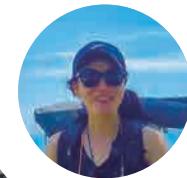
가을 캠핑,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는 법

캠프 파이어와 바비큐 파티가 제철을 맞는 가을은 캠핑을 떠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크고, 난방과 취사를 위한 화기 사용과 등산 사고도 많아져 주의가 더욱 필요하지요.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을 캠핑 즐기는 법을 소개합니다.

박찬은

평일엔 <매경시티라이프> 기자로, 주말엔 텐트에서 자는 바깥생활자로 살아갑니다. 국영방송 <이한철의 청호에드린 햇살>에서 매주 박기자 어디 가 코너를 진행 중이며, 캠핑 에세이『주말마다 나를 고쳐 씁니다』와 밀리의서재에서 음주 에세이『나의 음주술 책』을 펴냈습니다.

@camping-cs



일교차 크고 건조한 가을, 화재 위험 높아 가을에도 국지성 호우 발생... 계곡 주변 조심할 것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사를 살펴보면 캠핑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바비큐(69.3%)와 모닥불 놀이(49%), 요리(45%)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닥불은 바닥에 재를 모을 수 있는 화로를 사용해 풀이나 나무가 많은 곳을 피해 즐기고, 취침 전에는 물을 부어 마지막 불씨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가을에는 등 유 난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배기구나 연소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무색 무향인 일산화탄소는 중독 증상을 곤장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피로하지 않은 데 갑자기 졸립거나 경미한 두통이 느껴지면 즉시 외부로 대피하세요. 또한 가을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계곡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나 태풍도 종종 발생합니다. 경사면에 물이 샘솟거나 낙석이 떨어지고,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기울거나 캠핑장 주변 흙탕물이 증가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물이 쉽게 불어나는 계곡 비탈면, 하천변은 캠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은 깊이 박고,
등산화는 꼭 털고 신기
배낭 입구와 텐트 문은 꼭 잠그세요!**

Scene #1

맘 먹고 등유 난로를 장만한 A씨는 연료를 아끼려고 밸브를 절반 이하로 개방하고 잣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됩니다.

Scene #2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튀어나온 팩에 발바닥이 찢어진 B씨. 출입문이나 통로 주변은 손수건이나 야광 테이프로 줄을 묶으세요.

Scene #3

무심코 등산화에 발을 집어넣은 D씨는 새끼 뱀에 물려 119를 부릅니다. 해충인 곱등이와 뱀 등이 들어갈 수 있으니 배낭과 텐트는 꼭 잠그고, 신발 신기 전 꼭 안을 확인하세요.

앞서 말한 사례는 모두 가을철 일어난 캠핑장 사고입니다. 캠핑장 안전사고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1위(41%), 화상·일산화탄소 중독 등 난방 기기 및 취사기구 사고가 2위(30%)로 나왔습니다(2015~2020년). 거주공간을 자연 속으로 옮겨 생활하는 캠핑에서는 자연스럽게 사고나 부상에 노출될 일이 많아죠.

가을철 안전 캠핑 체크리스트



등산화와 긴 바지로 독사와 해충 막기

초가을에는 산모기와 지네, 뱀을 만날 수 있어요. 계곡, 산, 바위 지대 캠핑 시 등산화와 긴 바지를 착용하세요. 특히 가을은 진드기가 많이 활동하는 시기로, 풀숲이 우거진 곳에는 텐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종 레이어링과 에어 매트로 추위 대비

'기능성 속옷-플리스-원드재킷-방풍재킷' 순으로 레이어링하세요. 땀에 젖은 옷은 갈아입고, 사이트에선 경량 패딩을 입으세요. 그라운드 시트·가을 침낭·매트는 필수입니다. 가을부터는 접이식 밤포매트 대신 냉·습기를 막아주는 에어매트를 추천합니다.



과다 불판 금지, 불씨는 트리플 체크!

난로나 스토브에 연료를 보충할 때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야외에서 진행하고 요리 시 화상을 주의하세요. 과다 불판은 부탄가스를 가열 시켜 폭발을 일으킵니다. 등유 연료는 텐트에서 최소 3m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모닥불을 끈 후엔 세 번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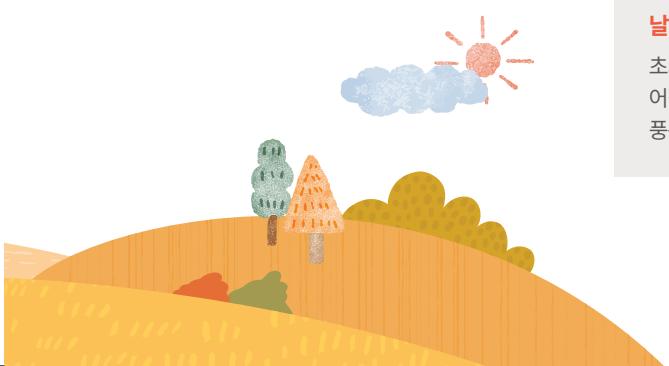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비할 것

소화 스프레이 등 미니 소화기를 휴대하고 헬터 안에서 난로를 사용할 때는 문을 꼭 열어둡니다. 3분 내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대비를 위해 감지기를 구비하세요. 취침 시에는 전기나 가스 난로보다는 온수주거나 핫팩 등을 활용하세요.



날씨예보는 꼭 풍속까지 확인할 것

초가을이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여름 침낭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노지 캠퍼라면 기온·강우뿐 아니라 풍속까지 확인하세요.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거나 풍속이 10m/s 이상이면 캠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대한적십자사,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대한적십자는 9월 16일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인정책추진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2005년부터 치매 예방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지사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치매 특화사업을 진행했다. 치매파트너 교육으로 봉사원과 직원 8,544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했으며,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캠페인 및 봉사단 활동을 추진 중이다. 홍보 팸플릿 10만 부와 돋보기 3만 개를 배포했으며, 봉사원 4,0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자립준비청년 모인 '온플루언서봉사회' 결성**

자립준비청년들이 적십자봉사회를 결성했다. '온플루언서봉사회'라는 명칭은 은평구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전국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이 모여 봉사회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길 바랐다"고 전한 은플루언서봉사회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링 및 정서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구지사



**제33대 박명수 회장 이임식 및
제34대 배인호 회장 취임식 개최**

대구지사는 6월 10일, 제33대 박명수 회장 이임식 및 제34대 배인호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배인호 신임 회장(성호건설(주) 대표이사)은 2016년 대구지사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봉사, 모금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서온 배 회장은 "앞으로도 적십자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울산지사



**2025년
RCY 전국캠프 개최**

울산지사는 8월 6~8일, 전국 15개 시도 RCY단(회)원과 지도자 1,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RCY 전국캠프를 개최했다. "함께한 120년, 함께 할 RCY"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전국캠프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120년 역사를 조명하고,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현대자동차,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울산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며 울산의 역동성과 도전 정신을 배워나갔다. 또한 지역별 RCY단(회)원 장기자랑 등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친목을 다졌다.

모듈 소식



경기지사



경기 북부 집중호우 구호활동 전개

경기지사는 7월 16일 발생한 경기 북부 집중호우 직후 직원, 봉사원,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등 총 1,293명을 투입해 긴급구호와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폭염 속에서도 피해 가구의 집기 세척, 정리정돈 등 복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급식차량을 통해 3,535명 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세탁차량을 활용한 세탁 지원과 경기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왔다.

충북지사



적십자봉사회 충청북도협의회, 베트남 하노이서 국제 봉사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협의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제 봉사 활동을 펼쳤다. 6월 12일부터 4박 6일간, 봉사원 17명은 하노이의 고아원 2곳을 방문해 선풍기와 학용품을 전달하고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봉사단은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고 친선을 다지는 등 진심 어린 소통으로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충청북도협의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지사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전북지사는 7월 중순부터 전주시와 김제 지역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장애인보호센터 등을 찾아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진행하며 치매 조기발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검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CIST 전문 교육을 이수한 심리지원봉사회원들이 동행해 1:1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에는 개별 결과에 따른 정밀 진단 안내와 함께 생활 속 인지 건강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지사



경북 아너스클럽 3명·아너스기업 2곳 신규 가입

경북지사는 7월 2일,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및 ‘아너스기업’ 신규 가입식을 개최했다. 아너스클럽 회원으로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주)민속한우 대표이사가, 아너스기업 회원으로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이사장 이윤환), 재단법인 운정국제교육재단(이사장 박일선)이 신규 가입했다. 김재왕 회장은 “기부자들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이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본사



대한적십자사, 제7회 국제재난복원력 세미나 개최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7월 3일 ‘제7회 국제재난복원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청소년적십자 네트워크(APYN), 동아시아 청소년 네트워크(EAYN)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폭염을 넘어 희망으로: 청년과 함께 만드는 회복력 있는 인도주의 미래’라는 주제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극한 기후현상이 청소년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청년 주도의 폭염 대응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대한적십자사, 광복 80주년 맞아 원폭피해자 위로 방문 나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8월 12일 원폭피해자 정정웅씨(85)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생존해 있는 전국의 원폭피해자 1,589명을 찾아 위로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마음 보드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철수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1986년부터 원폭피해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 보호 상징 ‘적십자 마크’, 상표로 등록되어 보호받는다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8월 26일 상표로 등록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앞으로 보호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서울지사



고 이춘조 고문, 청소년 위한 기부금 전달

서울지사는 고 이춘조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고문의 유족으로부터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 고문의 뜻에 따라 해당 기부금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1978년 자문위원장, 1989년 서울지사 부회장을 역임한 이 고문은 생전 40여 년간 소년원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한자와 시사상식, 경제교육을 진행했고 취업을 연결해왔으며, 이 헌신을 인정받아 2016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바 있다.



에어컨 청소 지원을 위한 맑은바람봉사회 결성

지역사회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을 위한 ‘맑은바람봉사회’가 신규 결성됐다. 임완수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용산시스템클린협동조합원들은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찾아가 무료 에어컨 분리 세척,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 안내, 실외기 청소 및 가스 주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시스템클린협동조합은 지난해 용산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 에어컨 세척 관리, 설치 유지보수 기술인력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이다.



청소년 기후환경 위기 대응 교육 보급

서울지사는 ‘Saving Earth’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청소년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진과 현직 초중고 교사진이 개발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 이 프로그램은 총 5개 과목으로 인식, 대응, 행동 3개 영역에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가 포함되어 있다. ‘Saving Earth’ 프로그램은 11월 말까지 66개교 5,7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진행될 계획이다.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함께라서 즐거운 다문화 아카데미

부산지사는 6월 26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온 14명의 이웃과 17명의 봉사원이 참여하는 ‘다문화 다함께 가자’ 아카데미 입학식을 개최했다. 6월에는 한국 전통 부채 만들기, 7월에는 고향의 국기와 태극기를 담은 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8월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다. 다문화 아카데미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선풍기 2천 대, 무더위 식히는 사랑의 바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 부산지사는 1,700 세대의 재난 취약계층과 216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순차적으로 선풍기 2천 대를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구호물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했다. 후원자들의 마음이 담긴 선풍기는 봉사원들의 손길을 거쳐 개별 전달되었고 혹서기 안전 수칙도 함께 안내되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는 부산 RCY 대학생봉사회는 6월부터 주 3회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권자유너와’를 찾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변파드 정리와 청소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식과 놀이를 통해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는 한편, 8월 29일에는 유기견 보호소 ‘뜰이네쉼터’도 방문해 사료 300kg을 전달했다. 쉼터 관계자는 “사료 후원은 물론, 강아지들을 아끼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대구지사



삼화식품,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

8월 7일, 삼화식품(회장 양승재)이 대한적십자사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대구 20호로 가입했다. 삼화식품은 1953년 대구에서 시작한 식품회사로 장류에서 아라치 치킨, 밀키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아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ESG 실천기업’을 통해 매월 100만 원씩 정기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삼화식품의 기부금은 국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재난 구호활동 등 적십자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건강한 한 끼를 후원합니다. (주)풀토래 후원, ‘사랑의 닭’ 나눔 활동

대구지사는 7~8월 두 달 간, 닭고기 식품 전문업체 (주)풀토래의 후원으로 취약계층 3,200세대에 여름 건강식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폭염 취약계층과 방학으로 결식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돋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풀토래에서 후원한 삼계닭 3,200kg은 삼계탕, 닭볶음탕 등으로 조리되어, 봉사원을 통해 당일 각 가정에 전달되었다. (주)풀토래는 2019년부터 무료 급식, 삼계닭, 유정란 등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 투게더(All Together) 다문화 봉사활동 제안대회 개최

대구지사는 6월 ‘올 투게더 다문화 봉사활동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다문화가정-적십자봉사회 간 연대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적십자봉사회 대구시협의회 소속 9개 구·군 협의회는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 결과 ‘오징어게임으로 만나는 한국 전통 문화’를 제안한 동구협의회가 1위를, 서구·북구협의회가 공동 2위를 수상했다.

인천지사



나와 가족을 지키는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

올해로 4년 연속 진행된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 캠프인 '2025년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가 6월 14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성료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있는 80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 안팎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 우리 가족 대피전략, 재난 VR, 지진 체험, 소화기 체험, 완강기 탈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베트남적십자사 호치민지사와의 국제교류활동

인천지사는 6월 17~20일 베트남적십자사 호치민지사를 초청해 인천을 배경으로 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교류는 작년 10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인천지사와 호치민지사가 양해각서를 서명하며 5년간 국제교류를 이어가기로 한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인천 적십자타운(인천혈액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며 기관의 발전과 자국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수해복구 현장에 나선 봉사원 및 임직원

8월 중순, 인천에 내린 집중호우로 빗물이 들어차는 피해를 입은 식자재마트에 인천지사 봉사원과 임직원 30여 명이 방문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직원과 봉사원들은 현장에 뛰어들어 빗물을 펴내고, 흙탕물로 뒤덮인 제품을 정리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앞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빗물과 토사 등으로 더러워진 옷, 이불 등 세탁물 약 2천kg을 수거하는 등 세탁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

울산지사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울산지사는 7월 21일 울산 청년 14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일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미래내일일경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장에서 적십자의 주요 업무와 사회공헌활동을 익히는 한편, 지사 빵나눔터에서 제빵 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체험했다.



경남 산청 극한호우 피해지역 구호활동

울산지사는 7월 26일 직원 및 적십자봉사원 60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산청군 신안면 내 피해 가구를 방문해 폐농기구 제거, 거주지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전개해, 극한호우 이후 폭염으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에 도움을 주었다. 채종성 회장은 "봄철 산불에 이어 대형 재난이 이어진 만큼, 이재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복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서초, 학생들이 키운 농작물 수익금으로 이불 나눔

8월 22일 울주군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두서초등학교의 여름 이불 전달식이 열렸다. 학생들이 직접 기른 옥수수 등 농작물을 지역시장에 판매한 수익을 울산지사에 지정 기탁하며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두서면 내 취약계층 15가구에 여름 이불 15채가 전달되었다. 두서초등학교는 "두서행복농장 가꾸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확한 농작물 판매 수익금을 매년 적십자사에 기부하며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난취약계층 400가구에 폭염 대응 지원

대전·세종지사는 8월 4~6일, 폭염에 취약한 40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선풍기와 넥쿨러 등 폭염 대응 물품 제공은 물론, 건강 상태 점검과 심리상담을 연계해 진행되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재난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며,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학RCY, 국가유공자 지원 '오늘 프로젝트' 시작

대전·세종지사는 6월 18일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지원 오늘 프로젝트' 스타팅 세리머니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RCY 회원 40명과 국가유공자 어르신 20명이 결연을 맺고 6개월간 정기 방문해 건강식품 제공과 정서적 지원을 이어가는 활동이다. 2019년부터 7년째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태양광 설비 지원 '희망나눔 햇살충전소'도 함께 추진된다.



대전 서구 정방마을 주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7월 19일, 대전·세종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수해 발생 1주년을 맞아 대전 서구 정방마을 주민 21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메디컬 아로마 테라피: Body-mind 향기 처방'을 운영했다. 향기와 촉각 자극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로 주민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서로를 위로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서정아 센터장은 "재난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주민들의 회복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이 센터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사



극단 노하우 뮤지컬 캠프 개최

8월 4~5일 가평군 우리마을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는 극단 노하우의 뮤지컬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이경화 감독을 비롯한 4명의 멘토와 함께하는 노래·안무 연습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배우 김성규와 함께한 즉흥연기, 최정원 홍보대사의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음악, 연기, 춤을 배우며 뮤지컬의 기본기를 익히고 팀워크와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국 대학RCY 인도주의 리더십 캠프 개최

전국 대학RCY 회원 180여 명이 참여한 '2025 전국 대학RCY 인도주의 리더십 캠프'가 7월 10~12일 강남대학교와 경기도 일원에서 열렸다. '청춘에게 닿은 120년,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120년 역사와 현재, 미래의 방향성을 함께 조명했다. RCY 회원들은 경기도 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친환경 업사이클링 봉사, 아동·청소년 시설 방문 등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했다.



광복 80주년·창립 120주년 기념 국가유공자 지원

경기지사 중부봉사관은 8월 13일 광복 80주년과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Re-connect 생명을 잇다, 그 해 우리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여름 이불에 태극기 자수 패치 부착, 태극기·세호 모양 쿠키 제빵, 취약계층에 전달할 밀반찬 조리·포장 등의 활동을 펼치며 감사를 전했다.

강원지사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리허설에 시각장애인 초청

강원지사는 7월 4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린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리허설(조성진 피아니스트 협연)에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했다. 시각장애인 및 관계자 50여 명의 리허설 관람을 통해 강원지사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과 소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선배 회장은 “시각장애인분들의 공연 관람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강원지사는 8월 7일 가평군 조종면 및 상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선배 회장과 적십자 직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시협의회 김문순 회장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북부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가구와 종교 시설을 방문해 토사물 운반, 파손 자재 반출 등의 정리 활동에 나섰다. 김 회장은 “가평군에 수해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션월드, 물놀이 안전 캠페인 및 특별회비 전달

강원지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16일 오션월드와 함께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오션월드 방문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를 살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간이구조법도 전파했다. 특히 오션월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취약 계층을 돋기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충북지사



미래 인도주의 리더, 대학RCY 학생지도자 연수 개최

충북지사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미래 인도주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RCY 학생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7개 대학 93명의 학생들은 괴산군 청소년수련원에 모여 리더십 향상과 현장 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응급처치 실습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의 교육을 받았다. 또한, 팀빌딩 활동으로 대학 간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층 성장한 학생들이 앞으로 펼칠 활약이 기대된다.



나눔 문화 확산의 주역, 후원자 모집 경진대회 시상

충북지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 적십자봉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8월 6일 상반기 후원자 모집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봉사원들과 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현봉 회장은 후원자 모집에서 큰 실적을 올린 봉사원들에게 직접 지사회장 표창과 부상품을 전달하며, 묵묵히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충북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북지사·충북혈액원, 당진 수해 피해 농가 복구에 힘 보태

충북지사와 충북혈액원 직원들은 7월 28일, 폭우 피해를 겪은 충남 당진시 농가를 돋기 위해 복구활동에 나섰다. 현장에는 충북지사·혈액원 직원 17명과 당진시협의회 봉사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침수된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사한 고춧대를 제거하고 잔해물을 정리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충북지사는 앞으로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일상 회복을 돋기 위해 지속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지사, 도내 저소득 보훈가족 특식 전달

충남지사는 6월 18일, 충남서부보훈지청 및 충남동부보훈지청과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한 특식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특식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 보훈가족 500세대를 위해 충청남도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에 걸쳐 보훈가족에 특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상반기 특식 지원은 충남서부보훈지청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총 1천 3백여만 원으로 마련된 특식은 적십자봉사원이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제23회 전국 RCY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6월 26일,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제23회 전국 RCY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RCY 제정 제62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나와 선생님 사이의 소중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모전의 입상작 109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안인호 사무처장은 "스승의 사랑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작품 모두 훌륭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산군 및 아산시 일대 수해 복구 봉사활동 전개

충남지사는 7월, 갑작스럽게 쓰러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과 아산시 염치읍 등의 침수 농가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긴급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충남지사 소속 봉사원과 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해 침수 가구의 가재도구 정리, 토사 제거, 농경지 복구 작업 등을 도왔다. 문은수 회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수해로 인해 심적으로 지친분들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지사



해양 환경 지키고 나라 사랑 실천한 전북 RCY 캠프

전북지사는 7월 28~30일 전북 RCY 단원 및 자도자 43명이 참여한 '울릉도·독도 나라사랑 실천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독도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전북교육청 지원으로 올해 3회째 이어지고 있다. 독도 입도에 처음으로 성공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낸 단원들은 울릉도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학교별로 나라사랑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며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 따뜻한 손길 전하다

전북지사는 7월 중순 이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각 지역에 긴급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고창군 침수가구와 순창군 대피소에는 응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생수를 전달했으며 진안군 성수면 가수마을에는 헬터와 담요를 긴급 지원했다. 이후 피해 현장에 투입돼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더불어 150인 분의 도시락을 준비해 이재민과 복구인력에게 전달했으며 심리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안군협의회, 결식 우려 아동에 황금도시락 전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안군협의회는 여름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 '황금도시락'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내 자녀, 손주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조리한다"고 이야기한 봉사자들은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 배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광주·전남지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펼쳐

광주·전남지사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영암 기찬랜드에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사고 중 구명조끼 착용 인원이 13.7%(해양경찰청, 2023)에 불과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재성 사무처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므로,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흑산면·비금면 봉사회 결성

광주·전남지사는 8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과 비금면에서 각각 적십자봉사회 결성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결성된 흑산면·비금면봉사회는 향후 지역 내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재홍 회장은 "이번 신안 섬 지역의 적십자봉사회 결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인도주의 가치를 확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수해 복구활동에 앞장선 국군장병에 치킨 전달

광주·전남지사는 8월 14일 광주·전남지역 수해 복구활동으로 고생한 육군 8332부대 장병들을 응원하고자 치킨 80마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교촌F&B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촌스러버'와 연계한 활동으로, 폭염 속에서도 복구활동에 헌신한 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되었다. '촌스러버 프로젝트'는 교촌이 치킨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경북지사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산불 이재민에 3억 원 가전제품 기부

경북지사는 7월 14일,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함께 산불 이재민을 위한 3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돋기 위해,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주도 아래, 교회 성도들의 모금 동참과 각 지역 교구 지도자 및 복지자립팀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기부물품은 헤어드라이어, 유선진공청소기, 공기 청정기 등 2,850점의 생활가전으로, 안동시, 의성군, 영덕군 등에 전달되었다.



다문화 봉사단 '경산다사랑봉사회' 출범

경북지사는 7월 11일, 경산에 위치한 남부봉사관에서 다문화 이주민으로 구성된 '경산다사랑봉사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총 8개국 출신 16명의 이주민이 참여한 이번 결성식은 다양한 문화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상징적 자리로 주목받았다. 임옥지 초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배운 나눔의 가치를 이젠 봉사로 돌려드릴 때"라며, "선배 봉사원들의 가르침 속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북지사, 한수원·경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경북지사는 8월 27일 경북경찰청,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천만 원을 기탁하며, 적십자는 피해자 긴급 지원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경북지사는 지난해에도 경북경찰청 및 지역 기관·법인들과 협력해 9,500만 원을 마련, 25명의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일상 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경북지사는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17일간의 집중호우 긴급 구호활동 마무리

경남지사는 경남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따라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직원 및 봉사원 1,435명이 현장에 파견되었고, 급식 18,935인 분, 긴급구호세트 514개, 비상식량세트 64개, 재난꾸러미 및 담요 1,269개, 헬터 225개를 지원했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차량 2대와 이동급식차량 2대, 이동세탁차량 1대, 냉장탑차 1대가 지원되었다. 경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심리상담가들(누적 44명)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335명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BNK경남은행 봉사활동복 600벌 기부

7월 31일, BNK경남은행(은행장 김태한)이 3천만 원 상당의 봉사활동복 600벌을 후원했다. 김태한 은행장은 “올해 산불과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봉사활동복이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당 봉사활동복은 재난 구호활동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 시 봉사원들에게 제공된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긴급 재난대응 차량 기부

경남지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남 도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재난 구호 현장대응 차량’ 기증사업을 진행했다. 7천 2백여만 원 상당의 해당 차량(솔라티)에는 재난 상황에서 구호활동을 원활히 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정보를 공유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통신 장비가 탑재된다.

제주지사



개그맨 김병만, 제주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

제주지사는 7월 5일 개그맨 김병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병만 씨의 홍보대사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2년이며, 제주적십자사 홍보대사로서 김병만 씨는 취약계층 지원, 재난 구호활동 등 다양한 적십자 활동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평소 성실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씨의 참여는 제주지사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음을 담은 사랑의 손 편지 제작

제주지사는 8월 20일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가구에 희망을 주기 위한 ‘봉사원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손 편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손 편지는 적십자심리지원전문봉사회원들이 지난 2월부터 제작해온 것으로, 희망풍차 결연 400가구에 직접 전달되었다. 강하준 회장은 “취약계층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손 편지에 봉사원들의 진심을 담았다”며 “편지를 받은 가구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은행과 함께 8월 4일 제주동문시장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출범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은행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비쿠폰 2,100여만 원과 제주은행이 매칭해 조성한 약 4,2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부금은 지역내 400가구에 여름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됐다.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적십자회비

40,228,527,315 원

정기후원

43,490,422,325 원

*2024. 12. 1. ~ 2025. 8. 31.

프로그램 후원 내역(2025. 6. 1. ~ 2025. 8. 31.)

사회공헌협약 체결

노원문화재단 센추리21CC 딜라이브 지앤팍드 토스페이먼츠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주)국민은행 (주)아성다이소 충청북도청 효성종공업(주) (주)기 도산업 (주)넥슨코리아 윤경립 성신양회주식회사 고려아연(주)
5,000만 원 이상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효성티앤씨(주) (주)KB손해보험 에이치 에스효성첨단소재(주) 종단대순진리회포천수도장 (주)도서출판푸른숲 (주)대우건설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1,000만 원 이상	(주)효성 KB증권 주식회사 (주)태준제약 (주)KB국민카드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주식회사 슈카친구들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Direct Relief KB라이프생명 (주)에이치에스효성 김·장 법률사무소 리앤목특허법인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 재독한인총연합회 주식회사비디비 (주)캠코에프엠씨 하나켐텍코리아주식회사 유미특허법인 제일특허법인(유) 리인터넷내셔널
500만 원 이상	독일 함부르크 한인회 (주)연호코스텍 오션테크(주) 주식회사다온시스 보험개발원 주식회사더유니콘 모과균 박향숙 윤애리특허법인(유한) 남아이피그룹 김두규
100만 원 이상	케이비자산운용(주) (주)파워킹 팬코리아 특허법인 대구달서구청사모 김종복 (주)사이로직 김도윤 최준욱 오금석 (주)빙그레 현세찬김장연 정채영 물금유치원 (주)카카오 주식회사에스알씨 (주)대영팜피코 NCT 홍소자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 한국시계기술협회 특허법인무한 박양호 카이특허법인(유한) 강앤드강국제특허법인 사무소 대한예수교장로회비전교회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

故정요한 강난파 강석종 강소영 강슬기 강신애 강신혁 강영신 강영의 강옥채 강원선 강은희 강중구 강태선 고광만 고진호 공봉애 곽경부 곽희순 구본무 구정희 구제길 구한조 권오록 권혁수 권혁홍 김거석 김경배 김경조 김경희 김교숙 김남희 김남곤 김남희 김대곤 김대환 김동욱 김명돌 김무임 김문자 김미 김미경 김미량 김민정 김민호 김범수 김병관 김병숙 김봉우 김상열 김상태 김상호 김석주 김선곤 김선향 김선호 김성주 김수관 김애란 김영식 김영자 김영현 김영혜 김영화 김영희 김우준 김윤희 김윤철 김은용 김은재 김의기 김인순 김일랑 김자경 김재봉 김재왕 김정규 김정수 김종기 김진태 김창남 김철 김철수 김철용 김청옥 김초원 김태연 김태영 김택남 김한 김한성 김형일 김호연 김홍국 김홍수 김홍식 김회자 김효봉 김휘성 김희선 김희월 김희철 남성희 남종현 도경희 류시문 목광원 문명재 문은수 문진석 민경용 박명수 박병선 박순단 박승현 박연차 박윤미 박장배 박재규(2회 가입) 박재상 박재연 박재천 박재홍 박주환 박종근 박종태 박춘영 박해진 박홍석 박희순 배인호 백낙서 백낙환 백인계 변순자 변정섭 서봉균 서봉숙 서의수 서정기 서정의 서창희 석승한 성점화 손덕임 손창우 송광자 송경자 송금순 송길자 송옥희 송은지 송재승 송준기 송혜교 신동삼 신성민 신수봉 신숙경 신용구 신정택 신현국 신현봉 안응수 안재욱 안준엽 양문자 양시백 양인준 양창홍 양한종 오길순 오나영 오복진 오연준 오현봉 우현희 유봉기 유중근 유진종 윤경립 윤금영 윤미선 윤병우 윤병철 윤신일 윤옥자 이강운 이경호 이기영 이도희 이동건 이명희 이미옥 이병현 이상락 이상록 이서례 이선진 이선흥 이성구 이성용 이세웅 이수만 이승기 이승연 이승엽 이승윤 이언구 이영건 이영철 이영해 이용찬 이유순 이재남 이정자 이정진 이정훈 이종욱 이주영 이종근 이중호 이태용 이태호 이현건 이현태 이해원 이희방 임경하 임복희 임순이 임은영 임형주 장대식 장대우 장성훈 장세욱 장영희 장예순 장오환 정진아 전범수 전병순 전종욱 전증희 정규진 정기호 정민혜 정석관 정석현 정성우 정영화 정영진 정용 정지선 정찬률 정채영 정필곤 조덕선 조의영 조정애 조현숙 주경숙 채종성 최경준 최광주 최상준 최신원 최영수 최영아 최용혁 최위승 최창걸 최총경 최해상 한광원 한영수 한일랑 한재승 한재현 한주식 한호동 허규현 허완구 허연호 허용수 허인영 허정 허종태 현종협 홍경순 홍라희 홍성열 홍오성 홍은영 홍종옥 홍태희 황광자 황규철 황세열 황영웅 황인성 황종현 황찬규

*가나다순(2025년 8월 31일 기준, 익명 기부자 8명, 중복 1명 포함 300명)

특별회비(2025. 6. 1. ~ 2025. 8. 31.)

본사

1억 원 이상	IBK 기업은행
1,000만 원 이상	(주)반성기공
500만 원 이상	동서산업진흥(주) 지형근 (주)정무이엔씨 (주)파인캠
100만 원 이상	고려아연(주) 선민기계 거정건설(주) 배강우 다우산업

서울지사

1,000만 원 이상	(주)드림코리아 주식회사 메쎄이상 (주)세계전람 (주)코트파
500만 원 이상	김포공항(모금함)
100만 원 이상	김정남 (주)뉴웨이즈컴퍼니 대한적십자사청소년오케스트라 자이에스앤디(주) 및 임직원일동 주식회사 자우미디어

부산지사

1,000만 원 이상	대선주조(주) 주식회사 메쎄코리아 새벽건설(주)
500만 원 이상	(주)램월드 주식회사 메쎄이상 부산시교육청
100만 원 이상	이옥자 강석봉 문천순(부산시 북구의회) 최은하 박철운

대구지사

500만 원 이상	(주)메쎄이상 iM뱅크 금복복지재단 주식회사 솔라엘디
100만 원 이상	(사)대구광역시수의사회 백인계 범방선도분과 서부새마을금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우체보험영업과 진성팜 주식회사 사웨딩풀 경북공업고등학교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주)우리은행 동산동지점 승호상회 신수태

인천지사

500만 원 이상	(주)메세코리아
100만 원 이상	대웅개발 주식회사 메쎄이상

울산지사

1억 원 이상	HD현대1%나눔재단
1,000만 원 이상	디와이더양
500만 원 이상	한국석유공사 울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경동도시가스 (공모회) 울산광역시택시조합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RCY 위원회
100만 원 이상	남혜수 영진(주) HD현대중공업 남구사랑 해피교통봉사단 장 생포고래빵 (주)청우건설 중부소방서 한국유미코아촉매 사우 회 횡토건설주식회사 RCY총동문회 울산여객봉사회

대전·세종지사

1,000만 원 이상	(재)티제이비우성문화재단
100만 원 이상	(주)동선이엔씨 조창열 보문고등학교 이영인

경기지사

1,000만 원 이상	한창기업(주) 주식회사메쎄이상
-------------	------------------

500만 원 이상 (주)미래전람 심정숙 (주)상림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00만 원 이상 김소정 김인희 오영주 김은하 이금례 (주)현대수리조트엔제너두

강원지사

100만 원 이상	오션월드 피앤케이홀딩스 영웅시대 춘천 핑크옹사랑방 정채영
-----------	---------------------------------

충남지사

1,000만 원 이상 하루도쉬지않는연세정형외과의원

100만 원 이상 (주)서해특장 충북전람

전북지사

1,000만 원 이상 전북은행 (유)국민종합주택관리 (주)지아이 (주)제이엔지

500만 원 이상 (주)금호엔비텍

100만 원 이상 (주)성웅종합건설 (주)웨스턴마린 (유)태정물류 중소기업은행
황성문 신한은행본점 (유)하늘고속관광 재단법인 하나금융
나눔재단

광주·전남지사

100만 원 이상 최정금 김형란 주식회사 에스이

경북지사

1,000만 원 이상 금종윤 iM뱅크

500만 원 이상 경상북도청

100만 원 이상 경북RCY위원회 (주)남신테크

경남지사

1,000만 원 이상 (주)동원유지

100만 원 이상 (주)거산이에스 (주)건화창원공장 (주)금화테크 (주)명신관광
(주)삼영엠아이텍 (주)성림엔지니어링 (주)엔디케이 (주)현대미
디어에이스 (주)현우종합전기 강정숙 거제종합사무기 금천종
합건설주식회사 김지현 김판수 김효선 남양산새마을금고 내
서읍이장자율회 대주회계법인경남지사 박명옥 박영희 벤엘
새마을금고 성현회계법인 셀럽성형외과의원 심산서울병원
와프(WAFF) 원광건설(주) 유신컴퍼니 의료법인 신화성의료
재단 잘본병원 이상은 이원정밀 이퓨월드 임영웅 영웅시대 창
원경남옹사랑방 자연안에한방병원 주식회사 더줌 주식회사
롯데축산 주식회사부광피앤티 주식회사지제이테크 지영배
파티마병원 한국건설(유) 황금자

제주지사

1,000만 원 이상 임말시아 클로버종합건설(주) 변영진 (주)제주은행 제주은행
임직원 오나영

500만 원 이상 고경희 주식회사 강용개발 춘강 불탑사 제주신용보증재단

100만 원 이상 강창우 지영자 고지윤 현미월 김용수 고영민 오길아 진성협
김효정 고한철 문영희 박순덕 김성준 문화순 강봉수 정민희
자치경찰단 제주새마을금고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생생한 활동 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RedCross〉 소식지를 만나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연 4회 〈RedCross〉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RedCross〉 웹진 구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독 시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 신청하기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후원자라면 정보 최신화하기!



〈RedCross〉를 이미 받고 있던 후원자라면 회원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우편물 반송을 줄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신청한 경우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 02-3705-3754로 문의

〈RedCross〉 2025년 여름호 독자 의견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금으로만 위안을 얻고 있었는데, ‘봉사가문 DNA는 다르다’ 기사를 읽고 주변에 대단한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 주변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김서연 서울시 마포구

독립유공자 후손을 돋기 위해 미흡하지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독립의 연대정신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개최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독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도 마라톤이나 걷기 캠페인이 열린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용희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더운 여름 더위를 어디서 이겨낼까 고민하던 중 최갑수의 통영 여행편을 읽고 정말 유익했습니다. 달아공원, 미륵산, 청마거리, 시락국 등 시원한 통영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뛸리고 당장 통영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올여름 바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통영을 찾아 시원한 여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박철수 경기도 의정부시

원폭피해자와 사할린동포 인터뷰 기사를 읽고 슬픈 역사의 피해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건강검진 지원도 받고 한국 정착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후대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국민임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후원자 선물 당첨

-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 김서연, 김용희, 박철수, 박정아
-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 강태균, 차정미, 송현복, 한수현, 황정환
-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 강해주, 곽현애, 박은실, 이송민, 조이진, 한상필, 홍주형



코너 및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독자 참여 QUIZ! •



각 문제의 정답을 맞혀보세요!

<RedCross> 가을호에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선물

4명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2만 원)

5명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7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Q1.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14쪽)

- (A) 희망진료센터 (B) 건강지킴센터 (C) 사랑나눔센터

Q2.

대한적십자사의 공식 현혈 앱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앱으로 현혈 예약, 현혈 기록 확인, 가까운 현혈의집 찾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힌트 21쪽)

- (A) 블러드링크 (B) 현혈플러스 (C) 레드커넥트

Q3.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진료 봉사 및 후원)할 수 있는 의료 봉사 플랫폼으로, **내외국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힌트 16쪽)

- (A) 모두진료센터 (B) 누구나진료센터 (C) 함께진료센터

Q4.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개념은? (힌트 5쪽)

- (A) 무료보건의료 (B) 사회보건의료 (C) 공공보건의료

|보기|

① A-C-B-C ② B-C-B-A ③ A-A-B-C ④ C-B-C-A

고객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2025년 <RedCross> 가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2001



2010



1905 - 2025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마다, 대한적십자사가 희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2020



2024



120+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
1905-2025 KOREAN RED CROSS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전화 02-3705-3705 홈페이지 www.redcross.or.kr